



16면

익산시 정부 공모사업 '전국 최강'

# 전주매일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음 7월 21일) 제30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 '정상 등교'

### 전북도교육청, 2학기 학사 운영 방안·방역대책 발표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등교시 일일 1회 발열검사

#### 학생 학습권 보호·교육결손 최소화하는데 '초점'

#### 학교 단위 원격수업 전환 필요시 교육청과 협의 후 실시

#### 개학 전후 3주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 운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등교 시에는 일일 1회 발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2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도교육청의 2학기 학사운영 핵심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방역 체계가 자율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2학기에도 각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역활동 지원봉사자' 제도가 운영된다. 이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일 2시간 이내 등교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 명목으로 17,000원씩 받는다.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의 골자는 1

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를 기조로,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통해 온전한 교육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 단위 기준 등교중지학생 비율이 50% 이상일 때만 운영하며, 50% 미만일 경우에는 등교수업과 대

체학습을 병행한다. 다만 학교 단위 원격수업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교육청과 협의 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등교중지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을 실시할 경우 기본적으로 교실수업 장면을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하며, 학생의 온라인 환경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해 온라인 콘텐츠나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2학기 평가는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기본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기말 고사 응시 지원 방침을 최대한 유지하며, 확진 학생 및 교직원 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 한 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개학 전후 3주 간을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 2학기 정상등교를 위한 방역물품 점검 및 방역 전담인력 확보 등 학교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학 초기 가정 내 유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원한다. 등교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자기진단법은 감염예방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비 13억원을 교육부와 3대 7로 배분해 구입키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688개교에 2,871명의 방역활동지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언어 발달 등 학습자원을 목적으로 유·초(1·2학년)·특수학교 교사 및 원어민 강사에게 1인당 30만 원의 투병차 마스크를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개학 후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등교 중지하고 격리해제 후에는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는 방역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한성하 대변인은 "2학기 정상 등교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 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2학기 방역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김제시 하키 실업팀 창단·육성 '청신호'

### 창단시 학교 운동부 활성화

### 시너지 효과 발생 예상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김제시가 하키 실업팀 창단 및 육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실업팀 창단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잘 알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의 의지가 크다고 했다.

정 시장은 후보 시절에도 정강선 회장의 실업팀 창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하키 운동부가 있는 중·고등학교는 도내에서 김제시가 유일하다.

하키 실업팀이 창단되면 학교 운동부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로 문제 등으로 선수가 없다 보니 경기에 나설 선수가 부족한 정도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실업팀이 연계되는 선수권 시스템이 구축 타 지역으로 우수선수가 유출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전북하키협회 이상훈 회장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보니 선수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뒤 운동을 그만두거나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이 많은데 실업팀이 창단되면 운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에 남아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팀 창단 후 하키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정성주 김제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김제시를 시작으로 지자체 실업팀 창단 붐이 일어 체육 강도의 명성을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남원, 전 국민 대상 도민체전 SNS 릴레이 이벤트 진행

남원시는 9월 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 SNS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남원시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에서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릴레이 이벤트 일자에 남원시 공식 블로그에서 유튜브 팔로우·좋아요·댓글 인증 인스타그램 응원 릴스 챌린지 등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하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무작위 추첨 및 인스타그램 우수 릴스 영상 투표 등을 거쳐 9월 7일 153명을 선정해 5,000원~3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권을 15일 증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어업 공익적 가치 증진

### 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완료키로

### 농어가당 60만원씩 11만9000여호... 지역화폐로 지급

### 도내 소상공인에 도움 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 형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의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

도는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8월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작년에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급대상에 포함했고 올해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도와 연접한 타 시도 시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으며, 약 11만9,000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13억원

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 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지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10만 6,000 농가에 약 638억원, 2021년 11만 2,000 농가에 약 679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살만한 농어촌 만들기과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여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왼쪽)과 전은수 (㈜자광 회장)이 17일 시청 시장실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시작했다. 이번 면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우 시장의 지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졌으며, 논의를 위해 전주시장과 (주)자광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 시작

### 우범기 전주시장-전은수 자광 회장, 첫 면담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주)자광 회장이 17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우 시장과 전 회장은 이날 옛 대한방직 부지 내 타워와 소광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주)자광은 지난 2017년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를 매입한 후 2019년 3월 타워와 소광센터,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출몰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한 대책과 대규모 상업시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주)자광에 전달했고, (주)자광은 권고사항을 반영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추석명절 선물 기획전**

행사기간: 2022. 8. 12. ~ 9. 2.

**01 추석 이벤트**

- 선물 기획전: 5~56% 할인상품 구성
- 행사기간중 10만원 이상 구매회원 1만 포인트 지급
- 행사기간중 신규회원가입 고객 3천 포인트 지급

**02 설문 이벤트**

- 기간 중 구매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설문조사 URL 문자전송)
- \* 설문응답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 증정

**[택배마감안내]**

신선식품 마감일: '22. 8. 31.(수) 오전 11시30분 결제완료간까지  
일반식품 마감일: '22. 9. 2.(금) 오전 11시30분 결제완료간까지

- 택배마감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택배물량 증가와 주문폭주로 인해 택배지연과 조기품절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